

# 삼국유사 속 고구려와 발해 “우리 역사 맞네”

### 일연학연구원 학술발표회서 집중 조명

### 고조선 고구려 고려 역사적 연결고리 분명히

고구려사를 강탈하려는 중국의 역사왜곡 음모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삼국유사>의 고구려·발해사 등 고대사 인식을 집중 조명한 학술발표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일연학연구원(원장 상인) 주최로 9월 3일 경북 군위 군청에서 열린 ‘<삼국유사> 체제에 보이는 고대사 인식’이라는 주제의 학술발표회가 그것. 올해로 4년째를 맞은 인각사의 ‘삼국유사문화제’ 학술행사로 열렸다.

이날 발표된 논문은 송호정 한국교원대학교수의 ‘<삼국유사> 고조선조(古朝鮮條)에 보이는 고대사 인식’, 조병중 우석대 교수의 ‘<삼국유사> 부여조에 보이는 고대사 인식’, 김현숙 박사(고구려연구재단)의 ‘<삼국유사> 내 주몽의 출생기사를 통해 본 국가계승의식’, 박진숙 충남대 강사의 ‘일연의 발해사 인식과 <삼국유사>’ 등 네 편. 이들 논문은 <삼국유사> ‘왕력’과 ‘기이편’을 중심으로 일연 스님의 고대사 인식을 다뤘다.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반론을 담은 것은 김현숙 박사의 논문이었다. 김 박사는 고구려 당시에 부여와 단군조선 계승의식이 팽배해 있었고, 고려 또한 고구려 계승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고조선·고구려·고려의 역사적 연결고리를 분명히 했다. 김 박사는 4세기경 고구려에는 부여 계

승의식이 보편적이었고, 대부분의 역사가가 이 점을 인정하고 있음을 전제한 뒤, <삼국유사>에만 제시되고 있는 ‘단군조선 계승설’의 의미를 규명하려 시도했다.

<삼국유사>에 언급된 여러 가지 계승설 가운데 하나인 ‘단군조선 계승설’은 주몽의 아버지인 해모수와 단군을 동일시하는 주장을 근거로 한다. 이에 대해 김 박사는 최근의 연구 성과에 의지해, ‘단군조선 계승설’이 일연 스님 개인의 창작이 아님을 밝혔다. 김 박사는 장천1호분에서 동굴 안에 웅크린 모습의 꿈이 단군신화를 묘사한 것이라는 점, 고 고구려의 10월 국중대회에서 사람들이 꿈, 즉 용녀를 섬겼다는 점을 들어 당시에 단군신화가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로부터 고구려가 고조선의 신과 국가정체성을 계승했다는 인식 또한 널리 퍼져있음을 김 박사는 강조했다.

박진숙 씨는 일연 스님이 발해사를 기술하면서 옛 고구려영토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삼국유사>는 발해의 15부 가운데 유독 압록·남해·부여·책성부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고구려의 옛 영토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씨는 <삼국유사>가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적 연속성을 입증함으로써,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하고 있다는 고구려역사 계승의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호정 교수는 고구려·발해사의 뿌리



고구려 첫 도읍지인 오녀산성(중국 길림성 집안시 소재). 지난 7월 다른 고구려 유적들과 함께 세 계유산에 등재됐다.

가 되는 고조선사에 대한 <삼국유사>의 인식을 다루며, 특히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에 초점을 맞췄다. <삼국유사>는 기자조선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으나, ‘고조선조’에서 단군조선에 이어 기자조선을 기록해 단군조선을 계승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위만조선에 대해서도 단군조선에 이어진 후조선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송 교수는 주장했다.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와 더불어 고대사를 기술한 대표적인 역사서로, 고려 말 우리의 역사관이 담긴 중요한 저술이다. 특히 단군조선이라는 민족의 시원을 밝히고, 고구려 계승의식을 담은 최고(最古)의 역사서라는 점에서 <삼국유사>의 역사인식을 다룬 이번 학술발표회는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한 학문적 대응으로서 의미를 부여할 만했다.

### <삼국유사>의 구성

5권으로 구성된 삼국유사는 왕력(王曆)·기이(紀異)·흥법(興法)·탑상(塔相)·의해(義解)·신주(神呪)·감통(感通)·피은(避隱)·효선(孝善)의 9개 편목

으로 나뉘어져 있다. 둘째 편목인 ‘기이편’은 고조선·위만·조선·마한·이부·칠십이국·낙랑국·북대방·남대방·말갈·발해·윤서국·오가야·북부여·동부여·변한·백제·고구려·진한·신라 등의 국가사를 다루고 있다.

박익순 기자 info@buddhapia.com

##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47>



### 알과 삶의 거리(1)

<장자(莊子)> ‘소요편’에 한 번에 구만리를 날아오른다는 봉황새와 나무 가지 사이나 날며 이러한 봉새를, 말도 안 된다며 비웃는 작은 새의 우화(寓話)가 있다. 우주를 나는 봉새나 그러한 봉새를 비웃는 작은 새나 똑 같이 하늘을 날 뿐이다. 다만, 하늘 밖의 우주란 자신이 갈 수없는 세계라고 믿고 있는 작은 새들은 자신들이 우주가 아닌 하늘을 날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봉새는 하늘도 우주의 한 부분이기에 자신은 우주를 날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인식과 전망(perspective)의 전환이며 이에 따른 삶의 문제이다.

알과 삶의 거리다. 부처님의 말씀도 더 이상 주석사나 해설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수많은 정보가 넘치고 공유되고 있어 일반인도 웬만한 스님들보다 더 부처님 말씀에 대하여 주위설길 수 있다. 지금 사회에서 우리의 삶이 그만큼 혼분하다. 하지만 중생의 고택탈(苦解脱)을 위해 이 세상에 펼쳐진 부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과연 그의 삶에 자유와 평화와 있을 것인가.

최첨단에서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이들이나 또 이러한 연구 결과를 접하는 일반인들도 그러한 연구 내용이나 결과가 무엇이라는 것은 잘 안다. 하지

## 하늘을 나느냐 우주를 나느냐가 문제 지식의 공유... 삶에 대한 책임도 ‘함께’

이미 우리 사회는 다양한 출판매체와 인터넷의 등장으로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지식이 이제는 더 이상 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일반인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것이 됐다. 요즈음 생명과학의 발달에 따른 우리 사회 속의 많은 논의나 환경 문제에 대한 치열한 대립 양상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회 변화를 반영한 듯이 보인다. 예전처럼 아는 사람들이 적당히 해 놓으면 나중에 일반인들은 ‘어? 그렇게 되었어?’ 하고 끝난 시점이 더 이상 아니다.

모든 것은 고정되지 않고 변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변화를 잘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전문가나 문외한이든 우리 모두의 책임은 더욱 증대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진정 알아야 할 것은 우리 각자의

만 이러한 것은 결국 삶의 차원일 뿐이기에 그러한 과학 지식의 알이 어떻게 인간들의 삶의 문제로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없이는 마치 부처님 말씀을 책으로 잘 읽기는 하지만 자신의 삶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전혀 무용지물이 될 뿐이다.

그렇기에 이미 많은 세계는 열려있고 열려가지만 이러한 세계에 대한 ‘나의 삶이 얼마나 자신의 삶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과연 우리의 삶(연구)이 얼마나 우리의 삶과 연계되어 있는 것일까?’와 같은 질문을 통해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알과 삶의 거리를 좁혀 가지 않는 한 우리는 각자의 입장이 학자이건 승려이건 일반인이건 여전히 우주가 이렇고 저렇고 떠돌지만, 정녕 그 세계를 알지 못하는 <장자>의 작은 새들에 불과할 것이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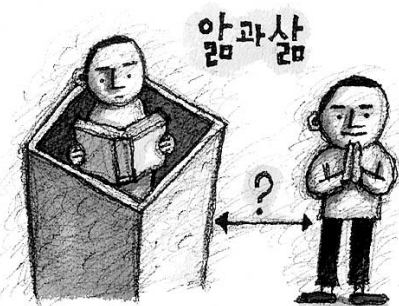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일본의 <신수대장경>에 의해 주도된 시대를 마감하고 21세기 디지털 시대에는 <고려대장경>이 불교학 연구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이하 장경연구소)는 9월 1일 안양 동대원암에서 가진 ‘디지털 고려대장경 2004 시연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고려대장경 2004’ 출시를 계기로 그간 외면당해온 <고려대장경>이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장경연구소가 이처럼 자신감을 갖는 이유는, 그간 <고려대장경> 활용에 걸림돌이 되었던 이체자(異體字) 새 버전에서는 정자로 교정돼 현대 불교학자들의 접근이 한층 용이해졌고, <신수대장경>과

의 일차 대조를 통해 오자를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이체자를 정자로 고치는 작업은 간단하지 않았다. <고려대장경> 원판의 훼손, 인경 및 영인과정의 오류, 유사자형,

작업 또한 만만하지 않았다. 여기에 소요된 시간만도 4년. 서로 다른 글자에 한해서는 원판까지 확인해 어느 편의 오류인지도 찾아냈다. ‘고려대장경 2004’는 그 같은 작업결과가 반영돼 어느 대장경보

다지감색, 문장검색도 가능해졌다. 또한 <고려대장경> 해제, 표제어 9,944개를 수록한 불교용어사전, 2만1,000개의 정자와 이체자 2만9,478자를 수록한 전자한자사전 등을 통한 환경으로 제공해 다양한 활용이 가능토록 배려했다.

그밖에 ‘고려대장경2004 연구정보’를 별도 CD로 제작해 <고려대장경>과 <신수대장경>의 일차대조 목록과 상세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고려대장경 정보화가 일단락됨에 따라 장경연구소는 티벳·베트남 대장경과의 통합 전산화 계획을 구체화하는 한편, 동국역경원(원장 윤희운)의 한글대장경과의 통합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도 오자가 적은 대장경이 됐다. ‘고려대장경 2004’에서 눈에 띄는 점은 사용자 편의에 주안점을 둔 기능개선이다. 분류체계·경명·경번호·주제 검색 등 다양한 방식의 검색은 물론

## “문장검색 등 가능... 신수장경 비교 오자 최소화”

### 고려대장경연구소 ‘고려대장경 2004’ 내놔

둘 이상의 정자를 갖는 이체자 등의 문제로 인해 장경연구소는 우선 통용자와 통합자 목록을 정리해야 했다.

<신수대장경>과 <고려대장경>의 5천만 개가 넘는 글자들을 한 자씩 대조하는

# 지장선원 만불보탑 낙성법회

### 귀의삼보하옵고

팔공산 앞 갯바위 입구에 만불보탑을 신축하여 대덕 큰스님을 모시고 낙성법회를 봉행하고자 하오니 사부대중께서는 두루 동참하시어 무량공덕 지으시길 바랍니다.

나무 지장보살 마하살

- 일 시 : 불기 2548년 9월 13일(음 7월 29일) 월요일 지장보살 오신날 오전 10시
- 장 소 : 팔공산 앞 갯바위 입구 지장선원 만불법당
- 연락처 : (053)986-0151, 983-0152 / 016-9511-9970

## 대한불교조계종 지장선원장 지공 손모음

### 범어사 승가대학 21기 모임 안내

- 연 제 : 불기 2548년 9월 12일(일) 오후 6시
  - 장 소 : 팔공산 앞 갯바위 입구 지장선원 만불보탑
  - 연락처 : (053)986-0151, 983-0152 / 011-809-0151
- 공마, 무관, 보명, 불공, 성고, 승법, 원광, 원철, 자현, 현공, 효명(가나다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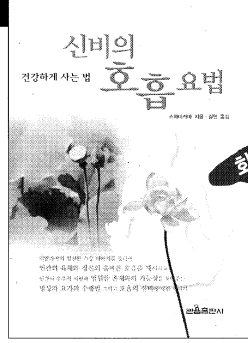


▶ 전인성거리에서 앞 갯바위 쪽으로 100미터 지점 위치

히말리아의 영원한 스승 바바지를 통하여 인간의 육체와 정신의 올바른 호흡을 제시하고 인간의 우주적 역할과 영원한 존재와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명상과 요가의 수행법 그리고 호흡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

### 건강하게 사는 법

# 신비의 호흡요법



● 슬프거나, 고심스럽거나, 화가 나면 손조물고 편안한 호흡을 할 수 없다. 다른 호흡방식과 마찬가지로 호흡의 흐름이 불규칙하면 육체에 이상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 명상은 한 곳으로 정신집중이 지속되는 상태이다. 깊은 명상에 있어서는 한 곳으로 정신집중된 마음이 무의식과 의식의 층을 뚫고 초의식의 경지로 돌파해 나가는 것이다.

| 스와미라마 지음 · 김연 옮김 · 신국판 240쪽 · 값 10,000원

### 관음역사 시리즈

- 1 해서 명리명명 신국판/양장본/판형/정가 30,000원
- 2 21년 최신 우리말 대운 안내서 신국판/양장본/판형/정가 16,000원(소)
- 3 재미있는 오형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양장본/판형/정가 2,000원
-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판형/정가 30,000원
-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양장본/판형/정가 40,000원
- 6 그림 당사주 대전 4x6배판/이산암 전호림 공저/정가 25,000원
-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판형/정가 25,000원
- 8 고전 풍수학 핵심부 신국판/양장본/판형/정가 25,000원
- 9 사주학 강의 신국판/양장본/판형/정가 12,000원
- 10 관상 수상지리 강의 신국판/양장본/판형/정가 15,000원
- 11 신도정비결 신국판/양장본/판형/정가 8,000원
- 12 사주 입상록 신국판/양장본/이성욱 지음/정가 25,000원
- 13 전통 풍수지리 황계관 신국판/양장본/판형/정가 130,000원
- 14 실전 사주학 길잡이 신국판/양장본/판형/정가 15,000원
- 15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장본/판형/정가 18,000원
- 16 꿈풀이 실용이 대백과 신국판/양장본/판형/정가 17,000원
- 17 명기총서의 가장화 비결 신국판/양장본/판형/정가 15,000원
- 19 구상학의 사주풀이 신국판/양장본/판형/정가 25,000원
- 20 육용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판형/정가 30,000원
- 21 한국 풍수 이론의 정립 신국판/양장본/판형/정가 25,000원
- 22 적천수 형의(上) 신국판/양장본/판형/정가 40,000원
- 23 대관과 풍수 地氣를 해부하다 신국판/양장본/판형/정가 18,000원
- 24 21년 최신명세력 4x6배판/양장본/판형/정가 35,000원
- 25 실전 명리학 첫걸음 신국판/양장본/판형/정가 15,000원
- 26 적천수 형의(下) 신국판/양장본/판형/정가 40,000원
- 27 정성 사주공부 신국판/양장본/판형/정가 20,000원
- 28 신 도정비결 신국판/양장본/판형/정가 9,000원
- 29 풍수학은 법 신국판/양장본/판형/정가 25,000원
- 30 황후, 더 이상의 학문은 없다 신국판/양장본/판형/정가 20,000원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61-15 광성 B/D 3층 T. 921-8434 F. 929-3470

###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초기공법

**건강을 부르는 氣 부를 부르는 氣**

몸과 정신건강의 혁명 현대병 치료의 한계를 기공으로 간단하게

이영일 편저 · 사륙판 · 212쪽 · 양장본 · 값 12,000원

**생명의 원천을 활성화시키는 21세기의 새로운 건강법**

**해산! 암을 이기다**

‘앞으로 1개월 밖에 살지 못한다’는 죽음의 선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 암 환자의 기행의 소리! 이제 병원에서 상용하기 시작한 해산의 경이로운 효과를 알기 쉽게 해설한, 바로 그 책

히로야마 기삼, 마에다기 요시카지 지음 · 사륙판 · 190쪽 양장본 · 값 12,000원

**신비의 건강요가 아우르베다**

오 천년의 역사를 지닌 인도 전통의 예방의학 체계로서, 아우르베다는 생활과학이며 인간이 살아가는데 행복한 삶과 장수(長壽)를 원하는 모든사람들에게 수식어가에 걸쳐 확인하고 더듬어간 지침들을 제시한다.

바산트 레드 지음 · 신국판 · 206쪽 · 값 7,000원